

## 배달앱 최혜대우요구 사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, 위법 여부, 제재 수준,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\* (서울경제 3.7.) “[단독] 공정위, 배민·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…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” 기사 관련

### < 보도 내용 >

- “[단독] 공정위, 배민·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…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” (서울경제) 제하의 기사에서,
  -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‘최혜대우’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,
  -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 공정위 입장 >

-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,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	책임자	과 장	임경환 (044-200-4599)
		담당자	사무관	정창석 (044-200-4502)
			사무관	진민 (044-200-4500)